

수능 D-90 4년제 대학 진학을 전국 1위 광덕고 교육 비결

학생이 과목별 교사 선택 수업 교사 12명 논술 영역 나눠 교육

일주일 한번 학생 면담 연간 50회 이상 스킨십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덕고 교정.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라는 명성답게 교내 분위기는 도심 속 전원학교처럼 아늑했다. 이 같은 학교 분위기를 만든다 광덕고의 실력도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광덕고는 2009학년도 수능에서 전국 6개 광역시 일반계 고교 중 4년제 대학 진학을 부문 1위에 올랐다. 광덕고의 지난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무려 87.3%에 달했다. 진학의 질도 압도적이었다. 서울대 5명, 연·고대 12명, 의·약학 계열 7명, 사관학교 5명, 경찰대 3명, 전남대 97명, 조선대 134명, 수도권 및 타지역 진학 50여 명 등 전체 350명 중 대부분의 학생이 주요 대학에 모두 들어갔다.

인성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교실 12칸을 모두 비우고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활동 공간으로 꾸며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인성이 바른 인재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학교의 견학 이념이다. 태권도 수업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전교생이 단계를 따는 전통도 1981년 개교 후 28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광덕고의 장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덕고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을 테스트한다. 우수 학생이 아닌 '부진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학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준별 학습을 받게 된다. <교사-제자간 유대 강화>=광덕고 교사들은 학생 1명당 연간 50회 이상의 스킨십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교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한번씩 학생과 1대1 면담을 갖는다. 교사가 학생과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자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가정사까지도 꿰차고 있다. 이 같은 개인정보는 고 3이 되면 대학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모든 교사가 논술·진학 전문가>=광덕고의 3학년 담임 교사는 모두 9명. 이들은 개인별로 주요 대학을 2곳씩 맡

아 진학정보를 마스터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담당하는 교사를 찾아가 진학 상담을 받는다.

또 12명의 교사로 구성된 논술 전문 교육팀은 이 학교의 '비밀병기'다. 이 팀은 인문(국어, 사회)·자연(수학, 과학)·논술팀으로 영역을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조만간 영어 논술이 시행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영어논술팀도 구축했다. <학생이 스승을 고른다(?)>=광덕고의 또 다른 특징은 1~2학년 동안 3년간의 주요 교과 과목을 모두 마친다는 점이다. 3학년이 되면 1~3학년 전 과정을 반복 학습한다. 물론 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별도로 추가 수업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과목별로 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설립자간 30만명>=광덕고는 1981년 고령 신씨 문중에서 만든 사립 학교다. 사립학교이지만, 개인의 소유가 아닌 덕분에 모든 학교 행정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학교 이사진도 광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만명의 문중을 대표하는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은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병폐인 이장 개인 위주의 학교 운영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3일 오후 광덕고 3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여름방학 보충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교실 뒤편에서 두명의 학생이 잠깨는 책상인 '키 큰 책상'에 기대고 수업을 받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여대 치위생학과 신설

광주지역 4년제 대학중 처음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 부상

광주·전남 유일의 여자대학인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가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13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전체 23개 학과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학과가 15곳에 이르는 등 지역 보건·의료·복지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치위생학과(30명) 신설 인가를 받았으며 제약학과의 신설도 지리 매김하고 있다.

웹디자인 과를 폐지하고 아동미술치료과, 언어치료학과 등을 신설했다.

사회복지 분야도 강화해 사법계열에 초·중·등, 유아 특수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문을 여는 치위생학과는 광주지역 4년제 대학 최초로 신설되며, 기존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등과 연계해 보건·의료학과 분야에 특화된 학교로 거듭나게 됐다.

광주여대는 여성의 취업률 제고와 특성화 대학으로 변신을 시도해 구체적 성

과를 보이고 있다. 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스텝어디스학과를 비롯한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콜마케팅학과와 미용과학학과, 식품영양학과 등 실용학과도 인가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특성화 정책으로 전공의 자율성을 살리고 특화된 전문지식·능력 배양으로 지역 의료·보건·복지인력 양성의 산실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2년 문을 연 광주여대는 23개 학과에 4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자취 추적

전남대 연구단 출범...2012년까지 6억원 들여 조사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이 출범해 지난 1929년 광주에서 발생한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80년(1929~2009)에 대한 종합적 기초조사가 진행된다. 연구단에는 전남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국대, 통일연구원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 토대과제분야에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및 DB구축' 과제가 선정되면서 가시화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 3년간 진행되며 연구비는 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연구단은 광주에서 촉박해 북한과 중국 만주, 북경, 상해 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 등의 지역으로 변진 학생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모두 방문, 현지학자들과 공동으로 독립운동 참여자 개인자료, 학교자료, 국가 기록, 언론자료 등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런 연구 과제를 총괄 기획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는 "이 연구가 학생독립운동 8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특별한 위기에 처한 국내외 관련 자료들을 발굴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세계 학생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10대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세계로 알리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단은 이 조사를 통해 기반으로 해방 이후 학생이 주도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도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현석기자 chadol@

화순 동복초교 개교 100주년 15일 교내 운동장서 기념행사

지난 1909년 개교한 화순 동복초등학교(학교장 공부철)가 오는 15일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동복초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건수)와 100주년 기념사업단(단장 김동현)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최인기 국회의원회장과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전완준 화순군수를 비롯, 동문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운동장에서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다.

주요 행사로는 1부 식전행사로 재학생들의 한천노악, 꼭두각시, 태권무, 사물놀이 공연, 바이올린, 오카리나 연주 등이 펼쳐진다. 제2부 기념행사는 개교 100주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념비 제막, 역사관 개관 등의 순으로 120분 동안 진행된다. 한편 동복초등학교는 그동안 9천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상담실 확대

2학기부터 32개교로 늘려

광주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 등에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상담실 등을 확대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0개교에 운영 중인 '친한친구 교실'(Wee 클래스)을 2학기부터 32개교로 늘리고 동·서부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생활지원단(Wee 센터)도 10월까지 광산구 첨단지구에 한 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 상담실에서는 전문 상담교사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지원단에서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부적응 학생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지원, 비행학생 위탁교육기관 연계 업무 등을 하게 된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23개교 영어교육 리더학교

교과부 선정...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금

전남지역 23개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교육 우수 리더학교로 선정됐다. 영어교육 활성화 분야의 최우수 학교에는 장흥서초와 순천공덕중, 보성고 등 초·중·고 5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교는 순천 조례초 등 초등 10개교, 중등은 영암여중 등 중학 5개교와 고등고 등 고등 3개교가 뽑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에 응한 23개교 모두가 리더학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학교수도 경기 50개교, 서울 33개교, 경북 26개교에 이어 4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최우수 리더학교는 장관 표창과 함께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금을 받게 된다.

리더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영어 교수법, 매체 및 원어민 활용도 등이었다. 도교육청 임태준 중등과장은 "외국어 교육연수관 신축과 함께 영어교사의 심화교육 시행,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확대와 원격 화상강의 활용 등 교사들의 질적 수준 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and 제일시네마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